

# 제주해변

이은선 개인전



이은선 개인전

# 제주해변

장소 : 갤러리ED (한라일보 1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기간 : 2022. 12. 2(금) ~ 12. 15(목)

※ 12. 5(월) 휴관

오픈 : 12. 3(토) 오후 4시

## 초대의 글 | 제1회 개인전을 열며

지난 겨울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오랜만에 중앙로에 있는 안경점 나들이를 가셨다가 산지천 일대를 산책하시며 변해 버린 거리 풍경과 새로 생긴 갤러리 들을 둘러보시며 거기에서 받은 도록과 리플렛들을 모아서 보라고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걸 받아본 순간!

한동안 손 놓고 있던 그림을 다시 시작하고 제주-서울을 오가며 단체전이나 부스 전을 통해 전시를 해왔는데, 다른 화가들이 개인전을 하는 걸 보신 아버지가 도록을 보라 주시니 마치 무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년이면 아버지께서 90세가 되시고 연세가 많으시니 살아계실 때 개인전을 열어 보여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개인전을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들 때 안하면 평생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환갑이 지나고 육십대 중반이 되어가는 이 길목에 용기를 내어 봅니다. 누구나 그렇듯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세월이 쓴살 같이 빠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 보니 실감 할 수 없는 나이에 도달해 있고 이렇게 사는 게 삶인가? 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애를 낳고 키우고 먹고 사는 일로 한참을 바쁘게 살다가 어느 새 50대 중반이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그냥 이대로 의 모습으로 생을 마감해야 되나 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

누구에게나 꿈이 있고 그걸 이루고자 애쓰다 포기하고 ...

한때는 그림을 전공하고 미술교사로 근무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림을 그만 두고 언젠가 여건이 되면 꼭 다시 하리라 마음 가졌었습니다. . 8년 전 어느 날 남편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먹고 자고 놀다 아무 의미 없이 끝내지 말고 그림 그려 라는 말에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그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풍경을 위주로 작업을 계속하다 보니 내가 그리는 그림이 제주의 자연 중에 해변을 소재로 많이 그려온걸 느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그린 제주해변 그림들을 모아 전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제주풍경을 그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그림을 통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더욱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삼년 동안 코로나로, 전쟁으로, 인간들이 감당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견디게 하시고 이겨 나가게 하시고 또한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며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일상 속에 잠시나마 그림을 보시며 걱정은 잊으시고 좋은 시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희망이 넘치는 해가 되길 소망하며 부족하지만 보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랜 기간 쉬고 다시 그림을 시작할 때부터 많이 도와주신 채기선 선생님, 늘 나에게 용기와 힘이 되어 주신 나의 멘토가 되어 주신 조수아 선생님, 잘 하고 있다고 늘 칭찬해 주는 나의 최고의 기동인 남편 김동욱씨,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보물들인 수빈, 효빈, 예빈, 큰사위 수용, 며느리현정, 손주 소은이, 로은이, 늘 내 곁에서 울타리가 되어준 모든 가족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60대 중반에 접어들며 더 늦기 전에 개인전을 열게 되어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전시회를 열수 있도록 재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리에 오셔서 감상 하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세컨드 라이프를 위해

2022. 12. 1.

서양화가 **이 은 선**



그곳에 가면 | 캔버스에 유채  
72.7×40cm (20호)

## 작가노트

중년은 결코 쇠락의 시간이 아니라 최고의 나를 만날 수 있는 절정의 시간임.

새롭게 인생의 황금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뜨거운 열정과 치열한 실험이 가능한 시기이다.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지 아니한가.

가는 세월을 한탄하고 막연한 두려움과 무기력에 사로 잡혀 있는 시간이면 충분 하다.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하지 않아도 세월은 간다.

지금 시작 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 그저 열 살 더 먹기밖에 더 하겠나.

내가 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믿어라. 해 낼 수 있다고 굳게 믿어라.

살면서 대단한 성공을 할 필요는 없지만 주어진 삶을 충분히 누려야 하지 않겠는가.

나이가 쉰이든, 예순이든, 일흔이든, 여든 이든 좋은 책을 골라 읽고 좋은 음악을 감상하고

그림을 가까이 하고 예술과 문화를 향유하며 평범한 날의 고독과 권태를 추방하라.

단 계속해서 문화의 소비자로 남아 있지 말고 직접 생산자로 진화하라.

나의 가치를 높혀 주고 참여하고 주도하라.

늦지 않았다.

예순 두 살 늦지 않은 나이를 보내며.

2022. 2월에.



바라보다 | 캔버스에 유채  
72.7×50cm (20호)





비양도가 보이는 금능리바다 | 캔버스에 유채  
72.7×50.09cm (20호)



범섬의 포효 | 캔버스에 유채  
72.7×53cm (20호)



그리움 | 캔버스에 유채  
72.7×50cm (20호)



몽돌해변 | 캔버스에 유채  
72.7×50cm (20호)



영알 해변에서 본 차귀도 | 캔버스에 유채  
72.7×50cm (20호)



성산의 봄 | 캔버스에 유채  
72.7×53cm (2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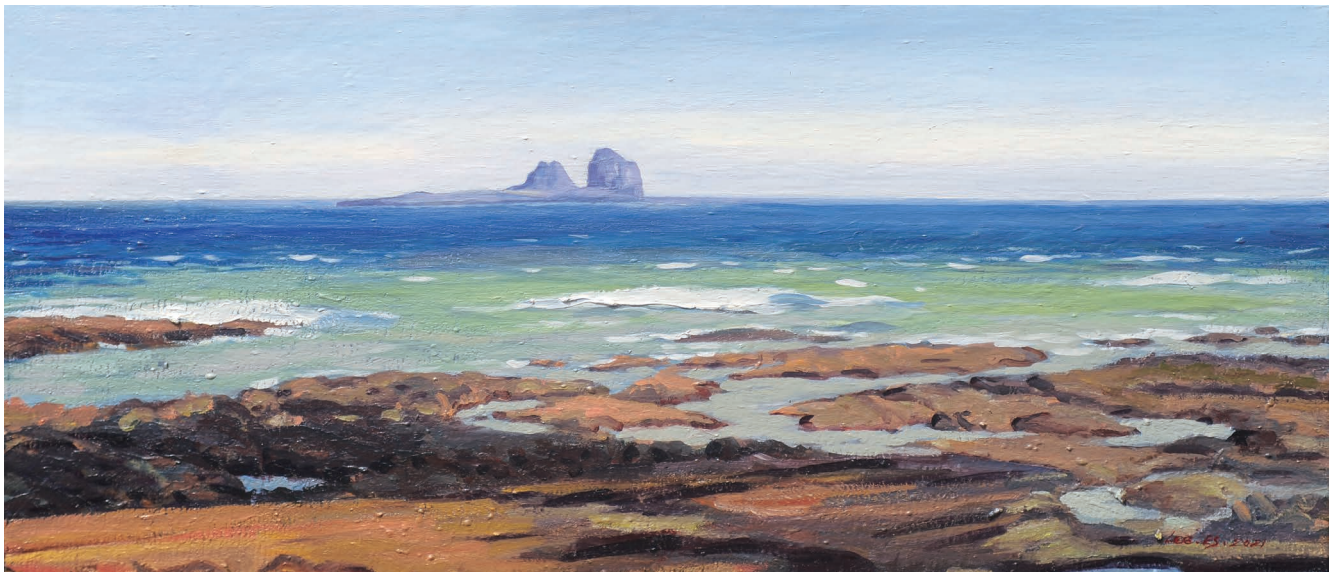


Lee E.S. 2012

법환 포구 | 캔버스에 유채  
72.7×60.6cm (20호)



기다림 | 캔버스에 유채  
80.3×35cm (25호)



동행 | 캔버스에 유채  
80.3×35cm (2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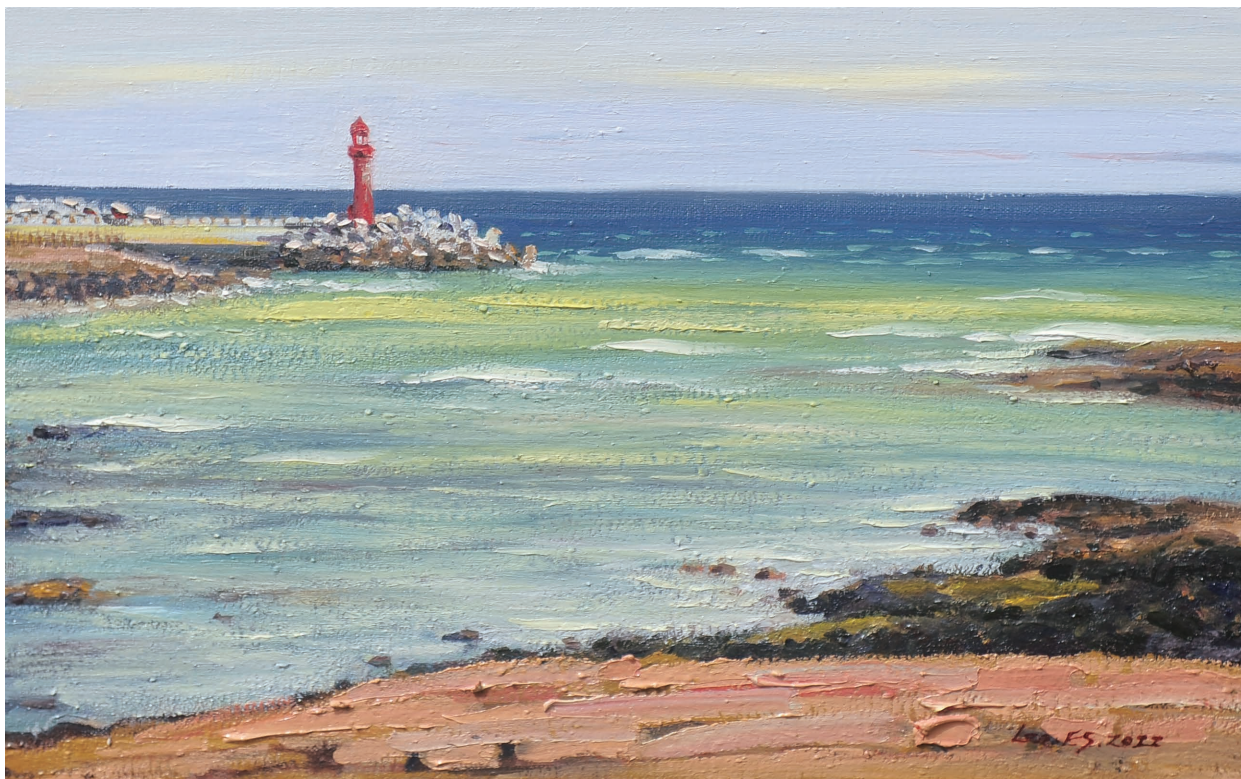


이호해변의 밤풍경 | 캔버스에 유채  
72.7×50cm (20호)





일출봉을 탐하다 | 캔버스에 유채  
72.7×40cm (20호)



사계포구의 등대 | 캔버스에 유채  
53×33.3cm (10호)



황우치해변에서 | 캔버스에 유채  
91×40cm (30호)



꿈꾸는 등대 | 캔버스에 유채  
72.7×40cm (20호)

## 등대

칠흙같이 어두운 밤 바닷가나 섬에 높이 서 있는  
등대를 보노라면 누군가에겐  
희망이고 길이고 인도자일 것이다.  
가야 할 길을 밝혀 주는 등대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사계해안 | 캔버스에 유채  
130.3×60cm (60호)



## 제주 해변

나의 그림은 자연을 주제로 한다.

화가란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평범한 사람들이 자연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사람이다.

제주의 해변은 무한한 나의 그림 소재이다.

고후는 죽을 때까지 가난한 농부, 자연의 풍경, 거리의 사람들을 그렸다.

아름다움의 정의는 저마다 다르다.

그러나 정의가 다르다고 해서 아름다움의 정도가 다른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소소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을 감사하며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찾아 갈 수 있다면 충분히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내 삶에 주어진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실력을 키워야겠다.

제주의 아름다운 해변을 보며 시대가 바뀌면서 현대화 되어 가는 풍경들을 보노라면 안타까울 뿐이다.

더 사라지기전에 천연의 자연의 모습들을 화폭에 담고 싶다.

그림은 창작이고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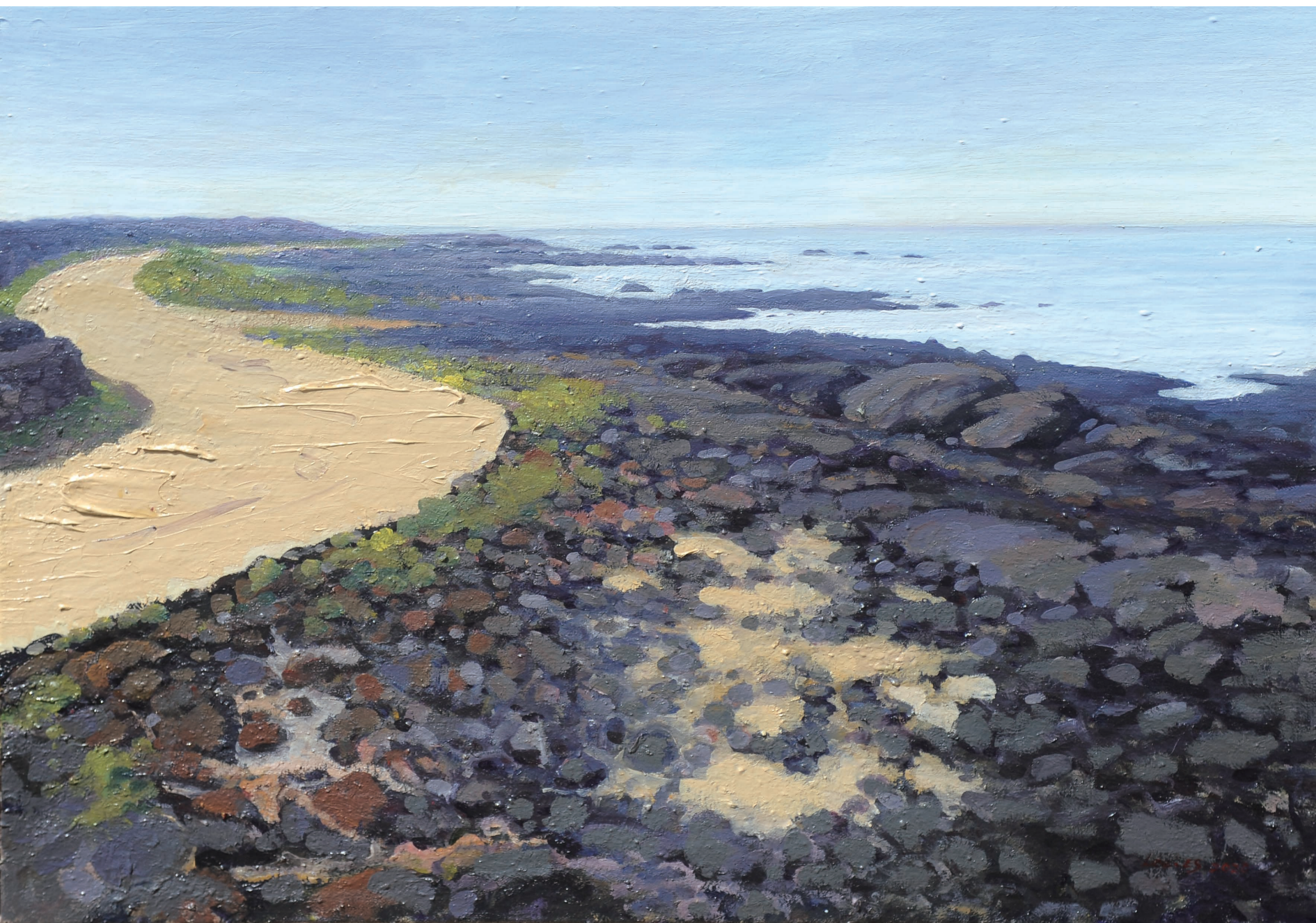
순간을 잡아두고 싶다는 것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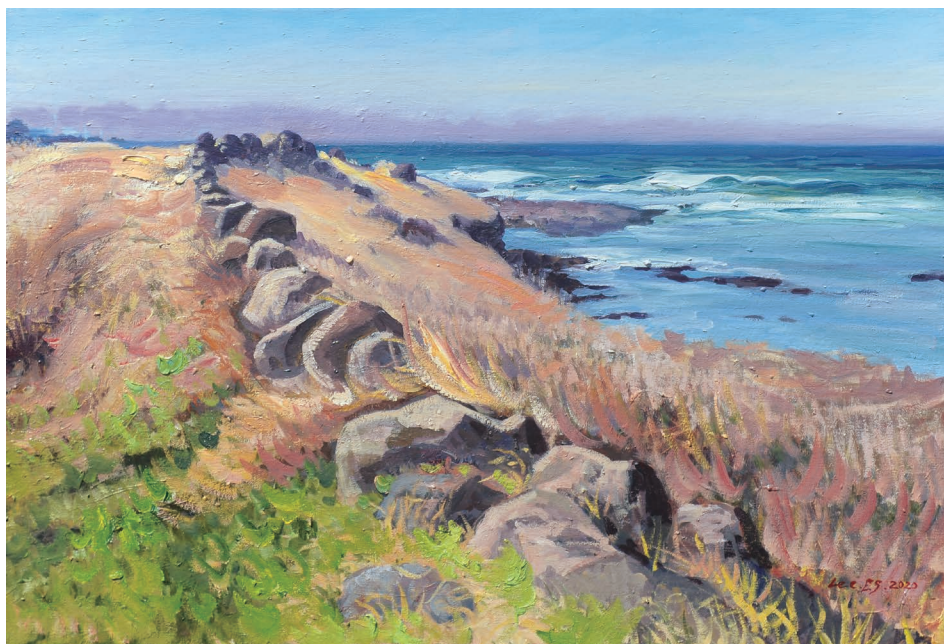
그리고 진짜 내것이 된다는 것

그림은 삶의 기록이자 추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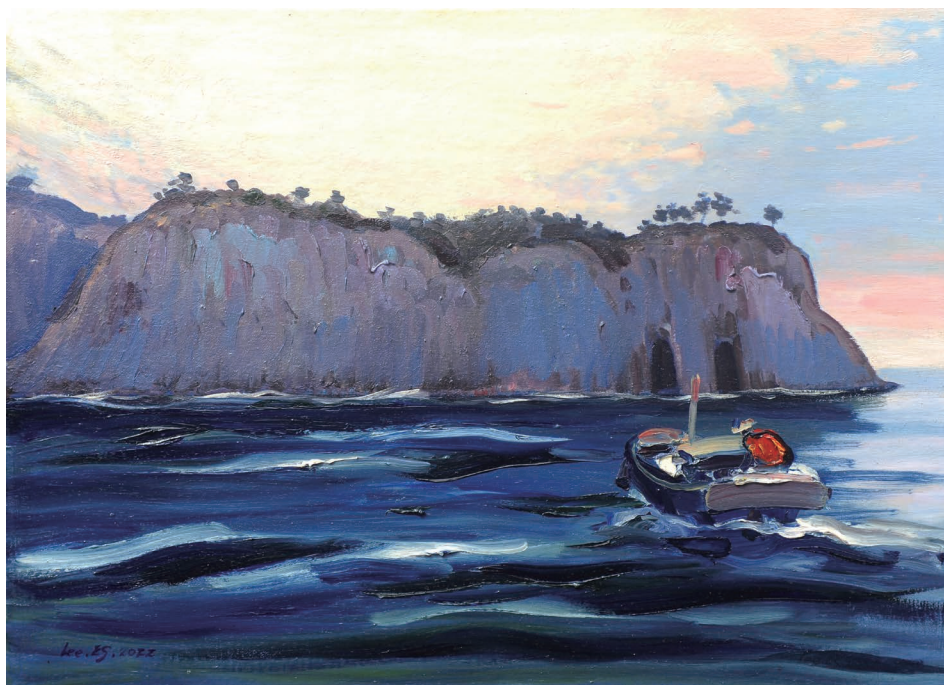
작업하는 순간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다.



제주해변1 | 캔버스에 유채  
72.7×50cm (20호)



제주해변 2 | 캔버스에 유채  
72.7×50cm (20호)



제주해변 3 | 캔버스에 유채  
72.7×53cm (20호)





제주해변 4 | 캔버스에 유채  
72.7×50cm (2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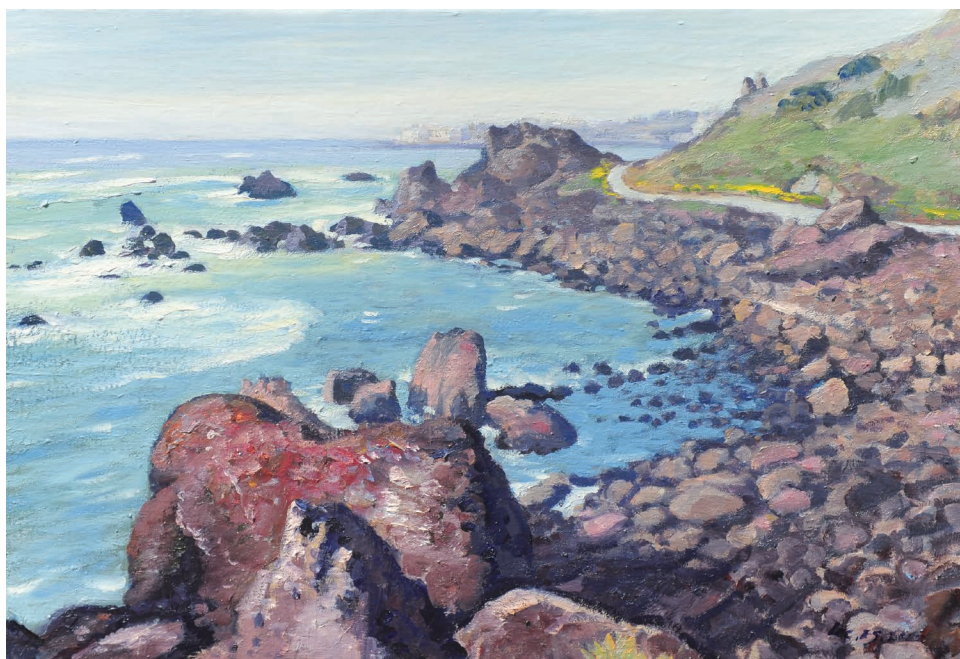
황혼 | 캔버스에 유채  
72.7×53cm (20호)



여유 | 캔버스에 유채  
72.7×50cm (20호)



종달리에서 | 캔버스에 유채  
72.7×53cm (20호)



한담해변의 오후 | 캔버스에 유채  
72.7×50cm (20호)



함덕해변의봄 | 캔버스에 유채  
72.7×53cm (20호)



사봉낙조 | 캔버스에 유채  
72.7×60.6cm (20호)

## 저녁노을

제주의 풍경 중에 해가 뜨고 지는 순간의 아름다운 풍경은  
너무나 황홀하다.  
동쪽 해변이나 서쪽 해변 어디를 가든 너무나 아름다운 풍광이  
나는 너무 좋다.

사봉 낙조 (이 청리 시 중에서)

저녁노을이 꽃바다인가  
꽃바다가 저녁노을인가  
저속으로 뛰어들고 타오르고 싶어라

라는 표현처럼 황홀한 낙조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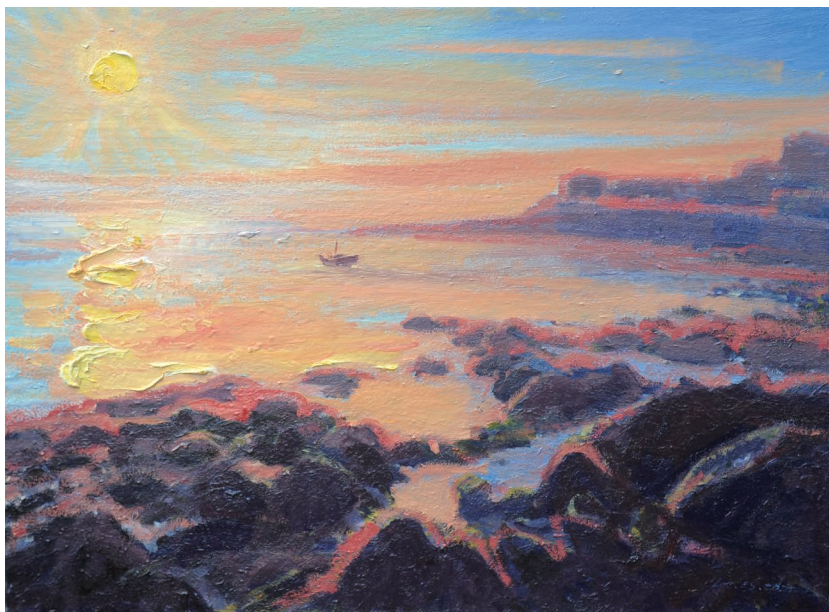




행원리의 저녁노을1 | 캔버스에 유채  
130.3×60cm (60호)



한담해변의 낙조1 | 캔버스에 유채  
65.2×45.5cm (15호)



한담해변의 낙조 2 | 캔버스에 유채  
72.7×53cm (20호)



행원리의 저녁 노을 2 | 캔버스에 유채  
72.7×60.6cm (20호)



광치기해변 | 캔버스에 유채  
130×60cm (60호)



## 이은선 | Lee eun sun

제주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주 소 : 제주시아연로 49 (연동 490-7)

전 화 : 010-2664-3385

이 메 일 : samda0368@naver.com

### 개인전

2022 제1회 제주 해변 (ED 갤러리. 한라일보사)

### 단체전, 부스 전

2022 제26회 제주 미술제(제주 문예회관)

2022 제주 국제 화랑미술제 (제주 라마다호텔)

2022 대한민국 현대 여성미술 대전 (서울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

2022 제주 동백 미술인 회 창립 전 (제주 문예회관)

2022 한국 전업 미협 정기전 (제주 문예회관)

2021 김만덕 나눔 작은 그림 전 (김만덕 기념관)

2021 한국 미술협회 제주 특별자치도지회 회원 전(제주 문예회관)

2020 한국 미술협회 제주 특별자치도지회 회원 전(제주 문예회관)

2019 서울아트 페어(코엑스, 서울)

프랑스 Beaute Du Matin Calme 갤러리 '봄의 이야기 기획 초대전' (프랑스, 파리)

2018 서울아트 페어(코엑스, 서울)

그룹 "선" 회원 전(경인 미술관, 서울)

2017 올해의작가100인초대전 (예술 공간, 서울)

2017 목우회 MIAF 구상 미술제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 현재

한국 미술협회 제주 특별자치도지회 회원

한국 전업미술가 협회 제주도지회 회원

동백 미술인 협회 회원

이은선 개인전

# 제주해변

발행일 2022년 11월

발행인 이은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49 (연동 490-7)

Tel. 010-2664-3385

인쇄편집 디자인리더제주

©2022 Lee Eun Sun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은 저작권자의 서면 허가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재할 수 없습니다.

\*No part of this catalogue may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form permission from the Jeju Museum of Art.





2022

Gallery **IED**